

#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 -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

변미경<sup>1</sup> · 박선정<sup>2</sup> · 최은영<sup>3</sup>

<sup>1</sup>송호대학교, 부교수 · <sup>2</sup>수원여자대학교, 조교수 · <sup>3</sup>경동대학교, 부교수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

Mi Kyeong, Byeon<sup>1</sup> · Sun Jung, Park<sup>2</sup> · Eun Young, Choi<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4권 제4호 2020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4, No. 4, Dec. 2020



#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 -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

변미경<sup>1</sup> · 박선정<sup>2</sup> · 최은영<sup>3</sup>

<sup>1</sup>송호대학교, 부교수 · <sup>2</sup>수원여자대학교, 조교수 · <sup>3</sup>경동대학교, 부교수

##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

Mi Kyeong, Byeon<sup>1</sup> · Sun Jung, Park<sup>2</sup> · Eun Young, Choi<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attempted in order to offer basic data to the development in a program for confirming a requisite demand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and for increasing college life adjustment through grasp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n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that the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go through. **Methods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qualitative research that analyzed the consultation diary contents, which were recorded after counseling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targeting the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of 3 universities where are located in Gyeonggi-do Province and Gangwon-do Province. **Results :**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interview materials on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that the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experience were elicited 82 significant statements and 16 categories. Through this study, the advice and counseling system is demanded that is available for supporting the college life adjustment as it is important for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to be adjusted to college life. **Conclusion :** A multilateral effort is needed for arranging a college life adjustment system and offering education in order to be helpful for the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not only in the dimension of academic department but also in the dimension of university.

**Key words :**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Experience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제도 및 정책의 변화,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도입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 간호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 되었고, 더불어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1]. 또한 최근 간호학과 신설 및 증설로 2005년 115개이던 간호학과가 2019년 203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간호대학 재학생수가 급증하였다[2]. 이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4]. 그리고 많은 매체를 통해 간호사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대한 정보, 신생 병원의 설립 등으로 간호학과 지원율은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5,6].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취업 또는 재취업과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위해 간호학과로의 재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7].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만학도 학생들의 동기는 전문직 직장확보, 취업의 안정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입학 후,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학 재학 내내 진로와 취업방향이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나이가 많은 학생들 상당수가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대학에서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서열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간호학과에서도 뽑을 수 있는 만학도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6].

간호학과는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타과의 학업에 비하여 학업성취 난이도가 높으면서 과중하다[5].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간호학과 1, 2학년과 임상실습중인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생활과의 상호작용을 하여 자신의 욕구와 대학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1]으로, 대학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이며 이는 성숙한 성인이 된 이후 개인적, 사회적 삶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3].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바른 가치관을 수립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된다[9]. 또한 대학생활을 통한 긍정적 상호관련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명확히 확립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만학도란 입학전형자격을 기준으로 25세 이상의 연령, 또는 사회 통념상 대학 진학 적령기를 지났다고 여기는 성인 학습자를 말하기도 하며[9], 학령기에 정규학교를 졸업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학습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10].

만학도는 본인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므로 긍정적으로 학업에 임하게 된다. 또한 학업을 통하여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배운 지식의 적용, 자기효능감의 상승의 삶의 변화 경험도 있지만[11], 가정 일,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어려움인 부정적인 면도 확인되어진다. 그 중 만학도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중 경제적인 면,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 가치관, 학업, 친구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만학도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 만학도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7], 성인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갈등체험에 관한 연구[13], 만학도들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14] 등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어진 만학도의 경험을 포함하여 학과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간호학과에 입학한 만학도들에게 더 큰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 이전에 간호학과 만학도들이 접하고 있는 대학생활에 대한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그

들의 간호학과 대학생활 적응경험을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시 필요한 요구를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을 상담 후 기록한 상담일지의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은 2020년 8월 15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진행된 상담내용으로, 총 60명의 1,2,3,4학년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해 상담하였고 수집된 상담건수는 59건이었다. 이 중 내용이 모호한 4건과 불분명한 결과 5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1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Patton[15]의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원 자료로부터 중요한 주제와 유형을 파악해 나가는 것으로 구문과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개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묶은 후 범주 체계를 구축해가는 방법으로 복잡한 자료를 의미 있는 주제나 범주로 조직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이다. 자료 분석 시 다수의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 3인이 참여하였다. 먼저 자료준비와 선정단계에서는 51의 상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

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해당되는 구문이나 문장을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단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그룹으로 묶어 84개의 소범주로 분류하였다. 자료명명 및 일반화단계에서는 분류된 내용으로 15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는 본 연구를 위해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의 동의와 철회 가능성,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동의서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동의서에 작성 한 후 면담 질문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만학도 대학생의 대학생활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로 4개의 질문에 관하여 간호학과 교수 3인과 인문학과 교수 1인이 본도구의 타당도를 3회에 걸쳐 검증 받았다.

##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내용을 분석하는 자체가 목적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규칙 자체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 하며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 객관적인 방법[16]인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범주의 분석은 연구자들이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반영한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자 간에 내용의 검토와 의논을 통해 추출하였다. 대상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여러 중복응답을 제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같은 의미와 비슷한 표현을 같

은 범주로 구분하는데, 각 범주는 각각의 질문에 내용 분석방법의 수량적 분석기법으로 제시되는 빈도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관련 내용을 코딩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코딩 프레임을 개발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들 간의 신뢰도가 90% 이상의 수준으로 일치할 때까지 사전연습을 한 후에 실제 코딩에 들어갔다. 코딩과정에서 모호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자의 주관 하에 토의를 통해 의견을 좁혔는데, 그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은 코더들 간의 신뢰도 측정이었다. 분석자들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Holsti 방법[16]에 의해 3인의 연구자가 계산하여 4개의 질문에서 신뢰도를 실시하였고, 4개 내용에 신뢰도는 평균 97%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화에 한 타당도 검증은 내용 분석에서의 타당도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기준은 학계 동료들로부터 중요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범주화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간호학 교수 3인과 인문학교수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51명으로 대상자의 나이는 35세 미만이 27명(53%), 35세 이상이 24명(47%)이었다. 평균나이는 35세로 나타났으며, 35세 이후 연령대에서 만학도로서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의 진술문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11명(22%), 2학년이 16명(31%), 3학년이 14명(27%), 4학년이 10명(20%)이었고, 남학생이 6명(12%), 여학생이 45명(88%)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고민경험은 41명(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생활 적응 고민 상대는 주로 학과 동기가 27명(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 상담경험은 41명(80%)으로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 상담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8명(80%)이 보통이라고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35	27(53%)
	<36	24(47%)
		35±11.06
Grade	1	11(22%)
	2	16(31%)
	3	14(27%)
	4	10(20%)
Sex	men	6(12%)
	woman	45(88%)
Experience of college life worries	Yes	41(80%)
	No	10(20%)
Companion for the worry about college life adjustment	Academic department comrade	27(53%)
	Family member	6(12%)
	Friend	8(16%)
	Never learned	10(20%)
Counseling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Yes	10(20%)
	No	41(80%)
Was the consultation for the college life adjustment helpful?	It was very helpful.	2(20%)
	Moderate	8(80%)
	It was not helpful.	0(0%)

## 2. 만학도로서 대학생활 적응경험

만학도로서 대학생활 적응의 의미에 관한 면담자료는 만학도로서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활에서 좋은 점, 대학생활에서 힘든 점,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것으로 4가지 영역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총 84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과 1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진술문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 대상자들의 중복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를 서술하였다.

**Table 2.** What do you Think College Life Adjustment is as a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N=51)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Harmony	• It is what can get along well with fellow students.	30	44
	• It is what is absorbed.		
	• It is what is maintaining with cooperating and collaborating with schoolmates.		
	• Smooth communication with young friends.		
	• Striving to reduce the generation gap.		
	• Even if being not a close relationship, young friends well follow with calling me elder sister.		
	• It is what gets along well with college students.		
	• It is what manages with being well harmonized without special disharmony among fellow students like my child, seniors and juniors.		
	• Making an effort not to run into an undergraduate student.		
	• It is thought to be a process of a lesson.		
	• It is what tries not to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 It is what does not treat inhospitably or ignore.		
	• A point that does not have a burden like a special prejudice is thought to be helpful for the learning life.		
Challenge	• It is thought to be another challenge.	15	22
	• It is the second life.		
	• It is aimed to accomplish a dream.		
	• It is aimed to start another life.		
	• It is new energy.		
	• It is thought to be considerably important to make own dream come true.		
	• This moment is meaningful because of being a place that I selected the second life and because of being what I wanted to do when I was young.		
	• It is what needs to get something through devoting a certain period of my life.		
	• It is aimed to accomplish own dream.		
	• It is aimed to fulfill a goal.		
Loneliness	• It is a place of realizing what I desired to do when I was young.	10	15
	• An important task was accomplished as a person.		
	• Don't have a conversation partner.		
Sincerity	• Old age leads to considering others.	8	12
	• A sense of alienation is felt.		
	• It is what participates positively with searching for necessary information for college life on homepage.		
	• It is what proceeds with well following a class.		
Generosity	• Smooth school adjustment(It is what well checks attendance and notice without omission.)	5	7
	• It is what well keeps school policy and well maintains friendship.		
	• It is what needs to back down and to look after because of being students in their 20s.		
	• A mind of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 1)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의 의미는 다음의 5개의 범주, 총 34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어울림], [도전], [외로움], [성실함], [베짚음]으로 나타났다(Table 2).

연구 대상자 중 대학생활 적응의 의미에 대한 대답 중 “동기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 “흡수되는 것”, “현역과 부딪히지 않게 노력”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44%(30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 이를 ‘어울림’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또 다른 도전이라 생각함’, ‘제2의 인생이다’, ‘새로운 활력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2%(15개)로 나타나 이를 ‘도전’으로 범주화 하였다. ‘대화상대가 없음’,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임’, ‘소외감이 느껴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5%(10개)로 나타나 이를 ‘외로움’으로 범주화 하였다.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원만한 학교 적응(출결, 공지사항 누락 없이 잘 점검하는 것)’, ‘학교 방침 잘 지키고 교우와 관계 잘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2%(8개)로 나타나 이를 ‘성실함’으로 범주화 하였다. ‘20대 학생들이라 양보해야 하며 돌봐줘야 한다는 것’, ‘이해와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7%(5개)로 나타나 이를 ‘베짚음’으로 범주화 하였다(Table 2).

### 2) 대학생활에서 좋은 점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에서 좋은 점에서는 다음의 2개의 범주, 총 13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수월한 대학생활], [삶의 활력소]로 나타났다(Table 3).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에서 좋은 점에서는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학생활 적응이 빠름’, ‘무덤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 ‘배워둔 지식과 경험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됨’, ‘문제 발생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양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듦’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55%(23개)로 나타나 이를 ‘수월한 대학생활’로 범주화 하였다. ‘다시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신기함’, ‘늦은 나이에 배울 수 있어 좋음’, ‘공부는 못하지만 공부하는 자체가 좋음’, ‘그 외에 그냥 학생이라고 불리는 자체가 좋음’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45%(19개)로 나타나 이를 ‘삶의 활력소’로 범주화 하였다(Table 3).

### 3) 대학생활에서 힘든 점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에서 힘든 점에서는 다음의 5개의 범주, 총 27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학습능력의 부진], [호칭의 혼재], [세대차이], [관계유지 어려움], [개인적 사생활로 시간관리 어려움]으로 나타났다(Table 4). 본 연구 대상자의

Table 3. What is a Merit in College Life as a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N=51)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Easy college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college life adjustment is speedy based on social life and school life.</li> <li>• Calm school life is available.</li> <li>• It is understood not only a professor but also young students.</li> <li>• The learned knowledge and experience are conducive to school life.</li> <li>• Flexible coping is thought to be available given the occurrence of a problem.</li> <li>• It is formed the mind of striving to concede.</li> </ul>	23	55
Vital energy of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tending college again itself is amazing and marvelous.</li> <li>• There is a passion for learning about novelty.</li> <li>• It is good because of being able to learn even at a late age.</li> <li>• Studying itself is good even if being bad at studying.</li> <li>• Just being called a student itself is good.</li> <li>• It is good because I feel like I'm getting younger owing to studying together with friends younger than me.</li> <li>• Because of being able to feel youth.</li> </ul>	19	45



대학생활에서 힘든 점에서는 ‘ppt 자료 만들기’, ‘컴퓨터 작업의 과제들’, ‘미흡한 영어 실력’, ‘기억력이 딸림’, ‘첨단 기자재 활용의 미숙함’, ‘어린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7%(20개)로 나타나 이를 ‘학습능력의 부진’로 범주화 하였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학생이라 불러주셨음 좋겠음’, ‘학우들이 이모라는 호칭은 안했으면 함(적응이 안 됨)’, ‘언니나 누나가 듣기 좋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6%(19개)로 나타나 이를 ‘호칭의 혼재’로 범주화 하였다. ‘대학 적응하는 것보다 젊은 친구들과의 소통이 안 됨’, ‘세대 간에 차이’, ‘어른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

음’, ‘학교생활에서 신입생들끼리 친해질 기회가 전혀 없음’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0%(15개)로 나타나 이를 ‘삶의 활력소’로 범주화 하였다. ‘교수님이 만학도를 불편해하시는 느낌이 듦’, ‘같은 만학도들끼리 서로 부류를 나눠 지내다보니 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음’, ‘같은 만학도지만 나이차가 커서 그런지 숙제를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많음’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4%(10개)로 나타나 이를 ‘삶의 활력소’로 범주화 하였다. ‘다양한 일과로 공부집중 시간적 어려움’, ‘체력이 떨어짐’, ‘가족이 내 생활에 우선임’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4%(10개)로 나타나 이를 ‘개인적 사생활로 시간관리 어려움’로 범주화 하였다(Table 4).

Table 4. What is Difficulty in College Life as a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N=51)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Poor learning 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king ppt materials.</li> <li>• Group assignment</li> <li>• Tasks of the computer work</li> <li>• Poor English ability</li> <li>• Difficult to study due to brain cell destruction.</li> <li>• Lacking in memory.</li> <li>• Hard to follow because of being a slow thinker.</li> <li>• Unexperienced use of advanced equipment and materials.</li> <li>• Information power shorter than young friends.</li> </ul>	20	27
Mixture of tit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would be good if a professor gives me a name or calls me a student.</li> <li>• I want fellow students not to call me an aunt.</li> <li>• A big sister is good to be heard.</li> </ul>	19	26
Generation g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unication with young friends is more difficult than being adjusted to college.</li> <li>• Generational difference</li> <li>• There is a limitation to what understands to pass for a reason of being an adult.</li> <li>• There is difficulty in acting suitably for the current trend because of being younger friends than my child in fact.</li> <li>• There is no opportunity at all to make friends with new students in school life.</li> </ul>	15	20
Difficulty in maintaining relations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is felt for a professor to be uncomfortable with a late-starting nursing student.</li> <li>• Professors' discrimination against a late-starting nursing student is felt.</li> <li>• Schoolmates try to communicate under the necessity.</li> <li>•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ternally because the same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get along by classifying each other.</li> <li>• When the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around shamefully act too conspicuously.</li> <li>• There are many cases of putting the homework off probably because of a big age gap even if being the same late-starting nursing student.</li> <li>• A late-starting nursing student at the middling age is so difficult in the group project.</li> </ul>	10	14
Difficulty in time management owing to personal priv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mporal difficulty in concentrating on studying due to a variety of routines.</li> <li>• A drop in physical fitness.</li> <li>• Family comes first to my life.</li> </ul>	10	14

#### 4)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것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것에서는 다음의 3개의 범주, 총 1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 [추억 만들기], [인성을 지닌 대인관계 능력 함양]으로 나타났다(Table 5).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것에서는 ‘자격증 취득’, ‘컴퓨터 활용 자격증’, ‘호스피스 관련 자격증’, ‘심폐소생술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8%(20개)로 나타나 이를 ‘다양한 자격증 취득’으로 범주화 하였다. ‘교과 외 활동’,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5%(18개)로 나타나 이를 ‘추억 만들기’로 범주화 하였다. ‘대인관계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취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목, 골프, 수영, 댄스, 요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7%(14개)로 나타나 이를 ‘인성을 지닌 대인관계 능력 함양’로 범주화 하였다(Table 5).

### IV. 논 의

본 연구는 만학도 대학생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80% 이상이 대학생활 고민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적응 문제는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의 직업 선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대학생활에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에 대학생 시기의 적응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7]. 최근 간호사의 인력확장으로 인해 편입 등으로 만학도가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만학도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연구결과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정의를 확인한 결과 ‘어울림’, ‘도전’, ‘외로움’, ‘성실함’, ‘배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만학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Jeong[9], Cho 등[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정의 중 “제2의 인생이다”는 진술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과 Kim[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만학도로서 학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본인이 제2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성장하고 싶은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정체감의 형성된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아 학교생활을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성장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9].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만학도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으로 “대화상대가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

**Table 5.** Please Rite Down all Given having What you Desire to Learn in College Life as a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N=51)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Acquiring various certific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ining professional license.</li> <li>• Computer Utilization Certificate</li> <li>• Hospice-related certificate</li> <li>• Certificate of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li> </ul>	20	38
Making mem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tracurricular activity</li> <li>• Circle activity</li> <li>• Hobby activity</li> </ul>	18	35
Promo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ith person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rticipating in a program for enhanc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li> <li>• Liberal arts courses, golf, swimming, dance and cooking helpful for enjoying hobbies.</li> <li>• Personality education of considering the other person.</li> </ul>	14	27

로 확인되었고 Kim과 Kim[19]의 연구에서 만학도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만학도가 느끼는 외톨이의 감정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Paik과 Song [10]의 연구에서는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어렵고, 일반 대학생들 무리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만학도들이 교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교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 좋은 점은 ‘수월한 대학생활’, ‘삶의 활력소’가 확인되었다. ‘수월한 대학생활’ 중 가장 의미있는 진술문은 “기존의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학생활 적응이 빠름”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Cho와 Kim, Sok[18]의 연구결과에서 ‘이전의 사회경험이 가지고 온 이점들’, 이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에 입학한 만학도들은 이전에 사회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교생활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만학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지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문과 상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 힘든 점은 ‘학습능력 부진’, ‘개인적 사생활로 시간관리 어려움’, ‘세대차이’, ‘교수님과의 관계유지 어려움’, ‘호칭의 혼재’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활의 좌절과 어려움과 관련해서 ‘공부시간 부족’,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 ‘영어실력 미흡’, ‘리포트 작성과 컴퓨터 능력 미숙’, ‘기억력 감퇴’,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확인되어 Kim과 Kim[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확인된 카테고리인 ‘학습능력의 부진’의 진술문으로 “ppt, 자료 만들기, 그룹과제, 컴퓨터 이용하는 것, 미흡한 영어 실력”이 확인되었다. 만학도를 대상으로 학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 강좌, 컴퓨터 강좌, 문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 ‘추억 만들기’, ‘인성을 지닌 대인관계 능력 함양’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만학도 전형 입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만학도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학과차원뿐만 아니라 대학차원으로도 만학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만학도들이 일반 대학생들과 대학생활을 어울려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도 요구된다. 교우들과 경쟁의식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만학도들이 학교의 동료, 선후배, 직원, 교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만학도의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기 위해 탐구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만학도들은 간호학과 재학 중 대학생활 적응 중 대학생활 적응의 좋은 점인 ‘수월한 대학생활’, ‘삶의 활력소’와 힘든 점인 ‘학습능력의 부진’, ‘호칭의 혼재’, ‘세대차이’, ‘관계유지의 어려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 ‘추억 만들기’, ‘인성을 지닌 대인관계 능력 함양’ 등을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학도 간호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며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자문, 상담제도 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과차원뿐만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만학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 생활적응 시스템 마련 및 교육 제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 References

1. Choi HJ, Lee EJ.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19(2):261-268. DOI: <https://dx.doi.org/10.7739>.
2. So YJ, Park JS.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2016;6(4):23-44.
3. Hurtado S, Carter DF, Spuler A. Latino student transition to college: assessing difficulties and factors in successful college adjust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996; 37(2):135-157. DOI: <https://dx.doi.org/10.1007/BF01730113>
4. Min SY.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6;15(4):409-419. DOI: <https://dx.doi.org/10.1111/j.1365-2648.2000.01534.x>
5. Cho YM, Kim EJ, Sok SH.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8(6):3409-3422.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671>.
6. Park HS, Yun JM, Kim YM, Choi YI, Hwang JH. Critical thinking, self-concept and stress adaptation of transfer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Fundamentals Nursing*. 2016;23(3):135-157.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671>.
7. Son SJ, Kim HJ. Study on experience in mature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24):501-520.
8. Cho EY, Kim JA, Kim JY, Kim HJ, Ra ES, Lee HY.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2016;2(1):35-43.
9. Park HS, Jeong KS.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4):549-557.
10. Paik YR, Song BN. The conflict experiences of adult learner in college life.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15;16(2):85-95.
11. Kim KS, Jo NJ, Choi EM, Ha HS. Study on matur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3;14(2):775-799.
12. Kim EA, Park KI. Factor affecting adjustment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234-243.
13. Baek YR, Song BN. The conflict experiences of adult learner in college life. *Qualitative Research*. 2015;16(2):85-95.
14. Kwon JH, Choi EH, Choi SY. A study on the direction of optimis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2015;2(1): 65-74.
15. Patton MQ.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rd ed. Newbury Park, CA: Sage; 2001. p.1-787.
16.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2nd ed.) Beverly Hills: Sage; 2004. p.1-453.
17. Lee HY.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s*. 2008; 1(14):337-355. DOI: <https://doi.org/10.17949/jneac.1.14.200803.015>
18. Cho YM, Kim EJ, Sok SH.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2019;19(2):671-683.
19. Kim GS, Kim MG. An autoethnography on the middle-aged female students desire for growth and self-realization.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2019;5(1): 109-137.